

가계부와 연구비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 효 철

1970년대 중반에 소액의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일이 있었다. 비록 소액이지만 처음으로 받은 연구비라 연구비를 어떻게든 아껴 쓰며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 퇴근시간도 늦추어가며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공릉동 공학캠퍼스에서의 조교수 시절이 즐거운 추억으로 떠오르곤 한다. 저녁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문제였었다. 마침 연구실이 5호관에 독립 건물로 건축되어 있었던 중력식 선형 시험수조에 있었으며 건물 내에는 다른 사용자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실에서 당번을 정하여 저녁식사를 준비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이 때 많은 학생들과 남달리 가까워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얼마 후 학과교수회의에서 학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으로 학과장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학장실로부터 호출을 받아 학과에서 신청한 물품의 청구내역을 설명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품목 일일이 설명하여야 하였는데 예컨대 학과에서 청색, 홍색, 그리고 흑색 볼펜을 2박스씩 신청한 것이 한 학기분으로 적정하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전체 72개라는 볼펜 수자로 보면 많을 수 있으나 색상별로는 24개에 불과하고 학과의 행정직원 수, 교수 수, 그리고 실험실 수와 조교 수 등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양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설명이 받아들여져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교수가 지급받는 볼펜은 학생의 성적 평가업무, 공문기안 등의 학과업무 수행에 사용되 교수가 교안을 작성하는 업무에서는 교수 개개인이 준비한 문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었었다.

시간이 지나며 학과 실험실습비의 집행을 학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유독 조선공학과의 문건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 비로소 알게 되었으나 놀랄게도 행정부서에서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자로 조선공학과 학과장인 나를 의심하여 학과 예산 집행까지도 집중점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연구실에서 함께 만들어 먹으며 예산을 절감하려 노력하였고 그 때 학생들이 시장에서 받아온 찬거리 영수증을 그대로 연구비 정산에 첨부하였었는데 가계부에 적힐 만한 식재료로 이루어진 연구비 정산서가 의심을 사게 된 원인이었음도 알게 되었다.

몇 해지나 1979년 공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연구실을 마련하고 새로운 연구 환경을 만들어가던 시기였다. 실험실에 필요한 정전압유지장치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제조회사와 가격협상을 하였다. 제조자의 호의로 제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우선 인수하고 연구환경을 정비하였다. 한편 예산잔액 범위에서 가격협상이 이루어졌으니 물품공급에 따르는 행정절차와 대금지급을 행정부서에 요청하였다.

상당 시간이 지나서 제조자는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하소연하여 왔다. 담당부서에 확인한바 행정부서로서는 동종의 제품을 학교에서 많이 구입하였는데 파격적 할인가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행 처리된 동종의 물품가격 모두 적정성이 문제 되어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이었다. 후일 제품을 납품한 회사에 확인한바 뒤늦게 대금지급을 받았는데 제조원가를 밀도는 할인가로 정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중의 정상 판매가격으로 정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부족한 예산이 마련되어 신청금액보다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발전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연구환경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난 2011년 10월 7일 명예교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학교의 연구비 수주실적은 4,941억 원이며 교원 수는 2011년 현재 2,334명이어서 교수 1인당 2억 원 이상의 연구비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행정직원은 1,0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구비의 집행을 돕기 위한 인원은 단순히 예산규모만으로 판단하건대 200명 정도는 되리라 생각한다. 연구비 집행지원 인력 1인이 평균 20억 이상의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연구비를 받고 흥분하던 1970년대와는 다르게 5개 과제에 공동연구원이 될 수 있으며 2개의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연구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모되었다. 적은 연구비로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몹시 자랑스러웠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심심치 않게 부실한 연구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다 보니 더러는 불성실한 결과를 내더라도 연구비 집행에서 하자가 없으면 요건만 갖춘 연구보고서가 받아지는 현실로 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대학에서 퇴직 후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감성적 판단밖에 내릴 수 없으나 대학이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연구비 집행에서의 효율보다는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아마도 예전처럼 가계부에 쓰일 영수증으로 연구비를 청구한다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나, 심증만 가지고는 연구비 집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았

던 1970년대의 연구환경이 보다 교수의 판단을 존중하였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당시 수행한 연구결과를 당시로는 그리 흔하지 않게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요즈음에 이르러서 연구비 집행에서는 빈틈이 없을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할 연구 성과에 있어서는 항상 너그러움이 지나쳐 연구 성과가 부실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제 연구비의 집행절차와 회계처리에 치우친 관리보다는 연구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처럼 연구비 집행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연구목표 달성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서울대학교의 연구 활동이 민족의 장래를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에, 상호 신뢰를 전제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비 집행방안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